

## 〈발표1〉

## 이혼을 고려하는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사례연구

박태영(숭실대)

김태한(숭실대 박사과정)

### 1. 서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일생의 중요한 경험이다. 누구나 행복한 가족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20-30년 이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잘살겠다는 바람으로만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현대사회는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전통사회가 가졌던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속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혼과 가족해체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아졌으며,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sup>1)</sup>은 2.9로, 일본의 2.1, 중국의 1.3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통계청, 2007).

이혼율의 증가는 배우자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Gottman과 Levenson(2004)는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연구를 통하여 결혼의 지속을 결정하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 첫 번째 기간은 결혼 후 7년 이하인데, 부부가 서로 적응하는 시기이므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김영희, 2006 재인용). 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결혼기간에 따른 이혼율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율은 26.5%, 5-9년 사이의 이혼율은 21.9%, 10-14년 사이의 이혼율은 18%, 15-19년 사이의 이혼율은 14.5%, 20년 이상의 이혼율은 19.2%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는 결혼초기에 부모와 갈등을 겪고, 부부관계에서도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었다(Hoffman & Weiss, 1987; 남순현·한성열, 2003 재인용). 부부가 결혼초기 단계의 과업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가족생활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Carter & McGoldrick, 1989).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초기의 적응과정은 큰 어려움이자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의 전통과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지배적이다. 특히 효사상은 확대가족의 응집력을 강조하고, 세대 간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규범을 제공한다. 한국문화에서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원가족을 확장하는 연장선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집안 문화와 전통에 귀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경

1) 인구 천명 당 이혼하는 비율

우, 자신의 성장배경과 다른 원가족의 문화와 관습을 강요받기도 한다. 소위 고부갈등은 결혼을 통하여 남편의 확대가족에 편입되는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갈등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현대화 및 서구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부부관계의 갈등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드러낸다.(김혜선, 1992).

Brown과 Brown(2002)은 개인과 부모가 설정해놓은 문제를 부부가 재협상하고 다시 설정하여야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가 자신의 원가족에 의해서 형성된 삶의 틀을 결혼이후에도 지속하고자 하면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결혼초기에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안정된 세계를 구축하며, 많은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재확립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차이점을 인정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형성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혼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한영숙, 2007).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부부의 갈등원인과 부부생활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로 회복시키는 실제의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론적 근거들과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한 반면에 실제 상담분야에서 적용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을 고려하는 결혼 초기 부부(결혼 5년차)의 가족치료 축어록을 통하여 부부갈등의 특성과 부부갈등의 배경이 되는 원가족의 특성, 이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개입 후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치료모델
- 2) Salvador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모델
- 3)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 4) 초이론적 모델
- 5) 가족생활주기

## 3. 선행연구

## 4.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결혼 5년차 부부/ 총 9회기 상담/ 부부상담 및 개별 상담
- 2) 연구 질문
  - (1) 이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부부갈등의 특성은 무엇인가?
  - (2)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특성은 무엇인가?
  - (3)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 대한 가족 치료적 개입의 초점은 무엇인가?
  - (4) 가족치료를 통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3) 신뢰도 검증 : 반복되는 개념의 비교/전문가집단에 의한 삼각화/자료의 삼각화/이론의 삼각화/
- 4) 분석방법 : 단일사례분석/ 질적 자료분석/ 네트워크와 매트릭스를 통한 재구성

## 5. 연구결과

### 1) 부부갈등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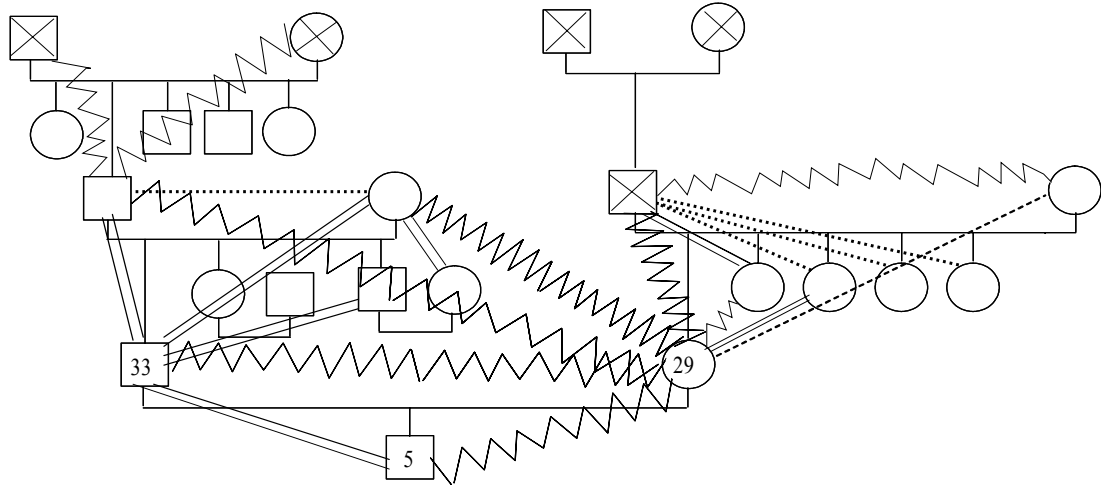
본 사례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결혼 5년차 부부의 가족치료 사례이다. 부인은 결혼 전부터 남편의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남편의 부모들은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대학을 나온 손아래 동서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였고, 수시로 부인의 친정식구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감정을 자극하였다. 특히 남편의 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였다. 부인도 자신의 감정을 시부모들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긴 편지를 통하여 불만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부인과 시집식구들을 서로 불편하게 만들었고, 상호 불만스러운 관계에 놓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의 부모를 편들고 대변하면서 부인과 관계를 악화시켰다. 남편은 부인의 불만을 수용하고 중재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추석 때에 부인과 시아버지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부인의 뺨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부인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부인의 태도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상담에 참여하기 직전에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정서적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인은 원가족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남편의 태도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시집식구나 시집의 집안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남편도 부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 2) 원가족력

구분	남편 쪽	부인 쪽
아버지	3남 2녀 중 장남	독자
	초졸	초졸
	짚은 음주	알코올중독(간질환으로 사망)
	일방적 가정폭력 행사	부부싸움
	평생 농사일/ 경제적 책임감	여러 직업 전전/ 경제적 무능력
	과도한 역할(간섭과 주도적 역할)	의존적 성향(응석받이)
어머니	무학	무학
	평생 전업주부	실질적 가장(다양한 직업활동)

### 3) 가계도



### 4) 연구질문 1 :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의 특성

구분	남편	부인
배우자에 대한 태도	- 부모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태도 - 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	- 남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발 - 남편에게 집착하면서 불신하는 태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 일방적 결정과 통보방식 - 비난과 무시하는 표현 - 부모를 대변/두둔하는 내용	- 폭발적 감정표현/ - 은유적 의사표현(암시적 표현) - 변덕스러움과 까다로움

### 5) 연구질문 2 : 부부갈등의 배경이 되는 원가족의 특성

구분	남편	부인
가족성원간 관계	- 하위체계 간 경계가 불분명(미분화된 자아군) - 며느리는 가족문화에 순응(포함)해야 하는 존재 - 자녀 가족문제에 일일이 간섭함	- 가족 성원의 개별성을 중시 - 부인(딸)의 시댁문제에 거의 개입하지 않음
부-모 권력관계	- 수직적 상하의 권력관계	- 수평적 대등한 권력관계
의식구조	- 사회적 체면 및 외형조건 중시	- 내면 및 정신적 가치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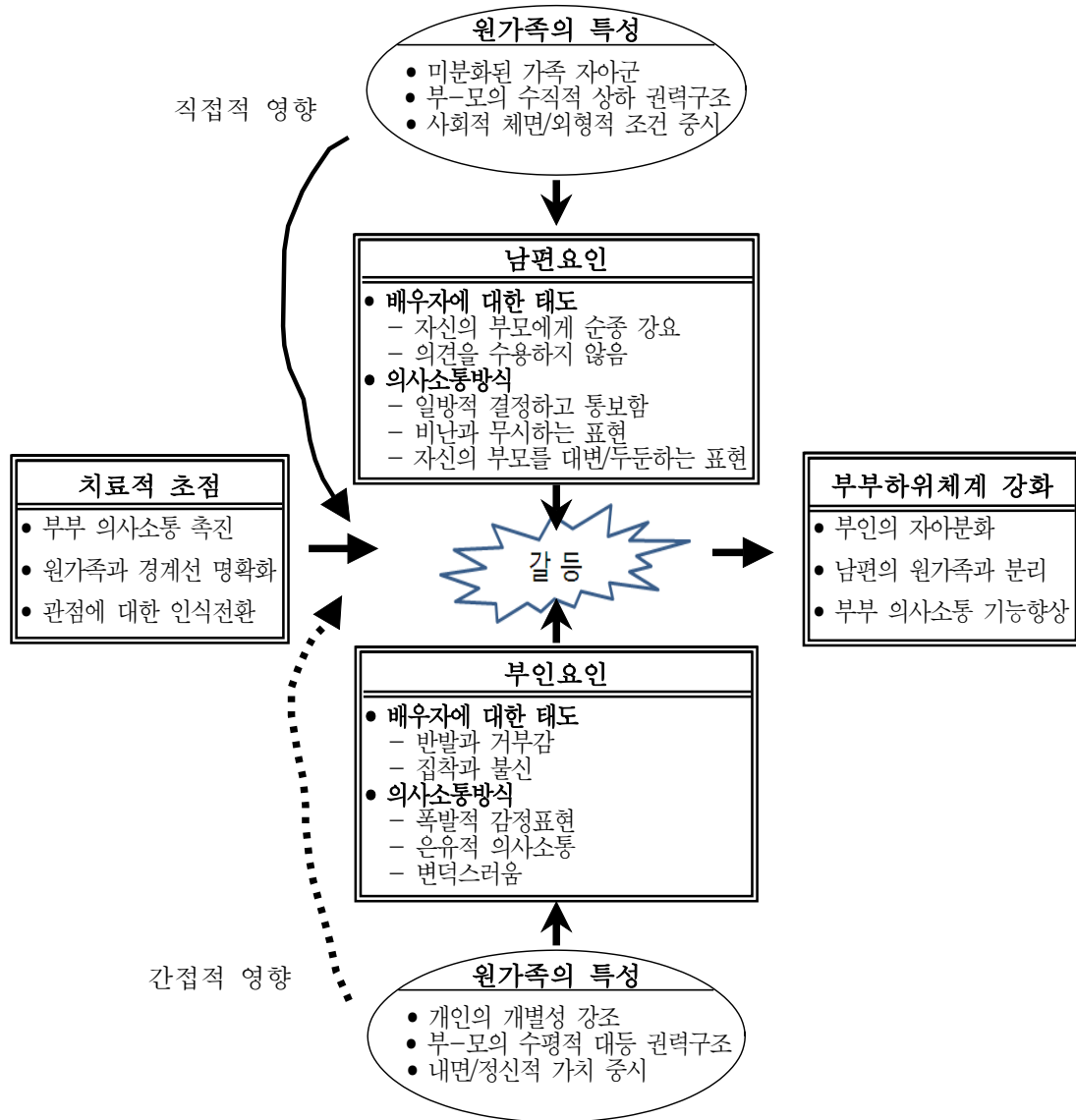
### 6) 연구질문 3 : 가족치료적 개입의 초점

#### (1) 부부간 의사소통의 촉진

구분	세부 기법
순환적 상호작용유도	- 한사람이야기 하고 다음 사람 이야기 진행/ - 배우자의 변화를 인정하고 지지하는지 물어 - 배우자를 신뢰하는지를 물어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챙기도록 함/ - 부부가 변화의 속도를 함께 맞추도록 함
표현방식의 중요성	- 내용보다는 표현의 중요성강조
시도된 해결책 이해	-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비효과적 방법사용으로 전환/ - 갈등의 이면에는 오해가 존재함(재명명)



### 8) 가족치료 모형의 네트워크 구성



## 6. 결론 및 함의

### 1) 결론

본 연구는 이혼을 고려하는 결혼초기 부부의 가족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원가족의 특성, 치료적 초점,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에서 남편요인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태도, 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기, 부인에 대한 비난과 무시하는 표현, 자신의 부모를 대변하는 표현 등이었다. 부인의 요인은 남편에게 반발하고 거부하는 태도, 집착과 불신의 태도, 폭발적 감정표현, 은유적 의사소통, 변덕스러움 등이었다.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원가족은 직간접적으로 부부갈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남편의 원가족은 응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미분화된 가족자아군을 형성하고 있었고, 부-모간의 수직적 상하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사회적 체면 및 외형적 조건을 중시하였다. 이런 요인들은 남편의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인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인의 원가족이 가지는 특성은 가족성원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부-모간의 수평적 대등한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내면적 요소(정신적 가치관)를 중시하였다.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한 치료자의 초점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과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고, 부부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입의 결과로 인하여 부부하위체계는 강화되었다. 즉,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던 부인은 남편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여 자기실현을 추구하게 되었고, 남편도 원가족에게서 분리할 수 있었고, 부부 간 의사소통 기능이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은 완화되고, 부인과 남편의 원가족과 갈등도 완화되었고, 이혼에 대한 고려는 사라졌다.

## 2) 함의

첫째, 부부 및 원가족의 차이점은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초기에 있는 부부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부부간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가부장적 문화가 우세한 가풍에서 장남으로 성장한 남편은 원가족과 적절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있는 의사소통 방식들을 새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고, 또한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총괄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가족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치료의 접근방식으로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과 치료적 개입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